

耽羅(탐라)의 文化(문화)와 風水地理(풍수지리)

변 창 두(제주풍수지리학회장)

일반적으로 풍수지리는 묘지를 선정하거나 집을 건축하는 분야에만 관련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우리의 모든 생활 분야와 관련을 갖고 있으며 언어 민요, 전설, 지명, 의례 등 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어 학문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는 미신적인 분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크며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가 개설되고 있음은 꽤 다행스러운 일이나 문화적인 분야로 강의를 진행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정립된 글이라기 보다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지면 관계상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1. 風水地理學(풍수지리학)의 개념

풍수지리학은 땅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여 그에 따른 인간의 길흉화복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과 안정을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여 우리 인간에게 광명(光明)을 주도록 하는 학문으로 그 바탕은 기(氣)의 흐름이다.

氣는 우주의 본원으로 에너지이며(energy)이며 만물을 생성소멸하는 근본인데 이러한 기(풍수지리에서는 生氣라 함)의 흐름을 풍수지리에서는 산세와 지형과 물의 흐름 및 방위 등을 통

하여 분석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 선조들의 삶의 방향은 오직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생활 방안을 택하였으며 수천년 동안 경험하여 내려온 이론인 것이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명백한 학문적 근거를 갖고 있고 우리 인류문화와 풍수지리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풍수지리를 연구하지 않고는 인류문화를 연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風水地理(풍수지리)의 原理(원리)

1) 得水와 藏風

지구의 중심에는 태양과 같이 뜨거운 핵(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핵에서는 지구표면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 방출의 결과 지구의 회전과 氣의 흐름에 따라 높고 낮음이 생기고 산맥과 계곡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지형에는 氣의 흐름의 강약이 생기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지형과 해로운 땅이 생기게 되었다.

氣의 흐름은 산세를 따라 흐르다가 일정한 곳에 이르면 멈추어 기가 일정한 기간 저장될 수 있는 형세를 만드는데 이를 穴(혈)이라 하며 이러한 형세를 이루는 산세를 연결해서 보면 일정한 능선(稜線)을 이루는데 이를 용(龍)이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龍이라 하면 어떠한 동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으나 山의 능선을 신성시 하다보니 설화나 전설에 귀(貴)의 상징이거나 천태만상(千態萬象)과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상징

제·주·의·문·화

적인 동물로 등장된 것이며 풍수지리에서 산의 능선을 용이라 부르는 것은 산맥이 흐름이 마치 용과 같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나 산의 능선 자체가 龍이지 우리 인간이 龍이란 상징적 동물을 먼저 설정하고 이것을 산의 능선에 붙여진 것은 아니다.

이러한 龍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내려오는데 한 산맥의 처음 출발점이자 일개 광역을 대표하는 높고 큰 산인 태조산(太祖山)에서 발원하며 이 발원한 용맥은 中祖山을 거치면서 剝換, 開帳, 穿心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 순화되고 다시 혈이 맺어지도록 단정하고 수려한 산봉우리를 이루는데 이를 소조산(小祖山)이라고 한다.

소조산은 양 옆으로 개장하여 靑龍과 白虎 능선을 만들고 중간으로 중심 출맥하게 되고 청룡과 백호는 中出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중심 출맥한 主龍(이를 來龍이라 한다)은 더 세밀하게 脫殺하여 변화하고 생기를 모으기 위하여 단아한 봉우리를 일으키는데 이 봉우리가 玄武峰이며 이 현무봉은 혈 바로 뒤에 있으면서 양 옆으로 개장하여 내청룡, 내백호를 만들고 중심으로 출맥하여 혈을 맺는다.

여기서 중심 출맥한 주룡은 물을 가로 지르면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멈추게 되어 생기가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이를 득수(得水)라 하고 여기에 머무는 생기를 보존하여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장풍(藏風)이라 한다.

金囊經¹⁾에 의하면 風水之法 得水爲上 藏風次之(풍수의 법은 득수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장풍이다)라 하여 득수와 장풍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풍수지리란 용어에서 風水는 단순히

바람과 물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선 풍수에서 風字와 水字를 분석하여 보자. 風字의 古字는 ‘기델상 几 안에 일백百’으로 穴을 이루는 局 안이 크고 밝음을 뜻하고 물水자는 ‘크고 빼어남’을 뜻하니 生氣가 들어와 크고 밝음을 뜻하는 것으로 ‘光明’이란 말이 된다.

결과적으로 風水는 우리 인간에게 광명을 준다는 말이 된다.

2) 陰陽五行論

우주의 근원을 太極이라 하며 無始無終하고 공허한 무형체라고 말하며 태극은 兩儀를 생하고 兩儀는 四象을 생하고 사상은 八卦(震兌離坎乾坤艮巽)를 생한다.

여기서 양의는 陰陽을 말하는데 만물은 음양의 작용에 따라 변하며 強함이 陽이라면 부드러움은 陰이고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음이고 곧음이 양이면 구부러짐은 음이고 上이 陽이면 下는 陰이고 숫자에서 一三五七九는 陽이고 二四六八十은 陰이라 볼 수 있다.

東은 木氣이고 南은 火氣이며 西는 金이고 北은 水氣이며 中央은 土氣가 되는데 이 木火土金水 오기를 五行이라 부른다.

이러한 오행은 相生相剋을 이루면서 온갖 만물을 변화시키는데 이 陰陽五行論을 풍수지리에 적용함은 주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四神砂에 대응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사신사란 玄武 朱雀 靑龍 白虎를 말하는데 明堂을 중심으로 하여 來龍이 내려오는 뒷산을 玄武(主山)라 하고 내룡에서 좌측으로 명당을 감싸는 산줄기를 靑龍이라 하고 내룡에서 우측

1) 郭璞(서기 276-324)이 저술한 책으로 상하2권 8편으로 되어 있으며 당 나라 때 장설 홍사 일행이 주석을 달았다. 이 책은 저자 미상으로 알려진 靑鳥經을 모태로 한 것이며 청오경을 葬經이라 부르고 금낭경을 葬書라 불리어지는데 풍수지리의 기본 이론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제주도 지명, 민요, 의례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책이다.

으로 명당을 감싸는 산줄기를 白虎라 하고 명당의 앞에서 명당을 생하여 주는 山이나 水를 朱雀이라 말하는데 현무는 水에 대응하고 청룡은 木에 대응하고 백호는 金에 대응하고 火는 주작에 대응하고 명당은 土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당수의 풍수들이 동서남북의 방위를 절대적으로 생각하여 산세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은 목이고 서는 금이다 하는 방법으로 길흉을 論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또한 내용이 得水하면 일정한 영역에 생기가 머무르고 명당을 이루는데 이 명당에 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는 것을 陽이라 한다면 이 생기가 머물러 저장되는 것을 陰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음과 양이 만나는 것을 沖陽和陰이라 말하는 것이고 음양의 충화가 이루어 지는 곳이라야 명당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위에서 말하는 오행을 正五行이라 하고 이외에 풍수에서는 雙山五行 宿度五行, 大元空五行, 小元空五行, 洪範五行, 長生五行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지리의 도는 乘氣 즉 氣를 타게 함에 있으므로 정오행을 원칙으로 하고 쌍산오행 장생오행 속도오행을 참고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3) 同氣感應論

生氣感應論이라고도 하며 풍수의 본질은 실로 생기감응에 의하여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생기감응이란 죽은 자의 뼈가 땅에 묻혀서 그 땅 속에 흐르는 生氣를 받는 것이 바로 그의 살아있는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생기감응에 대하여 靑鳥經에서 ‘百年幻化 離形歸眞 精神入門 骨骸反根 吉氣感應 累福及人 東山吐焰 西山起雲 穴吉而溫 富貴延綿 其或反是 子孫孤貧’이라 하여 사람은 백년이면 죽어

서 형상과 분리하여 정신은 우주영계로 들어가 고 골해는 다시 우주의 기를 받아들여 길가가 감응하면 많은 복이 자손에게 미치고 동산에 불꽃이 일면 서산에 구름이 일고 혈이 길하여 따뜻하면 부귀가 연면하며 그 반대이면 자손은 외롭고 빈곤하여진다고 하였다.

즉 자손은 부모의 유체이니 자신과 부모는 동격이라 할 수 있고 같은 체질과 같은 유전자 요소를 갖고 있어서 地中에서 부모의 骨體가 생기를 받아 감응하면 자손에게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다.

4) 明堂論

문헌상(禮記)으로는 周나라 武王의 아들 成王이 나이 어려 즉위하여 삼촌인 周公묘이 7년간 섭정시 諸侯들을 존비귀천에 따라 서열대로 입조시켜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는 堂室을 明堂이라 하였고 왕이 잠시 머물러있는 거실로써 왕도에 따라 정치상의 명령을 내리는 장소라 하여 천자가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조회하는 곳 중 여름철 4,5,6월달 3개월 동안 조회하는 곳이 明堂이라 하였다하며 漢나라 武帝 元封 6년(B.C.105)에 태일신과 五黃帝의 위패를 명당의 상좌에 안치하고 한나라 고조의 신위를 마주보게 배치하여 제사지내는 곳을 明堂이라 하였다 한다.(史記)

그리고,현재 일반적으로는 명당이란 본래 혈 앞 즉 음택에서는 분묘앞,양택에서는 主建物의 層龕을 내명당(안산앞)이라 하고 이 내명당에 비하여 약간 광대한 평지를 외명당(조산앞)이라 한다.

이 곳은 생기가 내용을 쫓아 내려와 머무는 곳인데 ‘붉은 돌(月) 이란 뜻이 된다.

여기서 돌은 하늘에 있는 돌이 아니라 ‘생기가 도달하여 있는 곳’ 이란 뜻이며 생기가 도달하여 있으므로 이 곳은 밝은 곳이며 광명의 세계

제·주·의·문·화

이며 붉은 돌이란 명칭에서 자연적으로 明堂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

이 붉은 돌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본원인 기(기 는 산룡을 따라 흐름)가 태조산에서 발원하여 중조산을 거쳐 소조산인 주산에 이르러 낙맥하고 중심출맥하여 혈에 이르게 되는데 태조산에서 시작하여 주산에 이르는 부분을 天山龍이라 부르고 주산에서 현무봉을 거쳐 혈에 이르는 부분을 透地脈이라 한다.

천산룡은 天(하늘:하늘에서 나온 것으로 '하'는 크다는 의미이고 '눌'은 기가 내려오다 멈추는 또는 산세가 내려오다 머무는 의미이다)이고 투지맥은 地이며 혈은 人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양 사상의 기본 원리인 天地人 삼재가 여기에서 탄생한 것이고 혈에 이르는 과정은 삼 단계이나 혈에 이르러 陰陽沖和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음양충화하여 하나가 되는 곳이 '붉은 돌'이며 밝은 기가 도달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여기서 내용은 아버지를 의미하여 하늘의 정기를 받는다 하고 어머니는 붉은 돌을 의미하여 하늘이 인간을 소생하여 땅이 이를 기르나니 땅은 인간을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 하는데 이를 地母思想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묘지나 거주지로서 '붉은 돌'을 택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祭天行事를 열었는데 그 명칭은 동예의 舞天, 부여의 迎鼓, 고구려의 東盟, 고조선의 舞天 등이다.

동예의 舞天은 혈(人=天)을 생하여 밝게 한다는 의미이고 부여의 영고는 敲(氣가 充滿함을 의미)를 맞는다는 의미이고 고구려의 東盟은 浬(밝은 기) 기운이 강하게 서린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천의식은 밝은 기를 받는 화정이며 제사를 지낼 때에 焚香을 하는 것은 氣를 타는 것을 말하고 술을 올리는 것은 내려오는 氣를 멈추게 하는 것이며 분향시에 잔을 돌리는 것은 물이 返함을 의미하고 茅沙에 술을 부르는 것은 물이 破口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3. 풍수지리 이론의 유형

1) 形氣論(形象論)

山의 龍脈의 흐름을 중요시 하고 龍·穴·砂·水 등 산세의 외적 변화 현상을 보아 산세의 모양이나 형세상의 아름다움을 유추하고 산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의 融結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산악 지형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인데 羅經은 보조적으로만 사용한다.

여기서의 주체는 山이다.

2) 理氣論

음양오행론을 중심으로 길흉화복을 논하는 학문으로 물길의 흐름을 보고 좌향을 판단하는 이론으로 龍穴砂水의 방위를 측정하고 다음 陰陽五行法을 따져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론인데 羅經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서의 주체는 물(水)이다.

3) 形局論(物形論)

산의 모양을 사물의 모양에 빗대어 명당을 정하고 이름을 정하여 혈장을 선별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맹호출래형, 와우형, 옥녀탄금형, 갈마음수형이니 하는 것으로 산세와 지세를 한 눈에 파악하여 단정할 수 있는 술법과 같은 것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전통적으로 풍수를 설명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4) 제주도 지형에서의 적용

제주도 지형은 경사도 5% 이상의 지형이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라산을 정점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어내려 다시 分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산의 중심출맥을 중심으로 하여 매장하는 방법이나 전통적인 건축방법이 線에너지藏法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므로, 제주도 지형에서는 형기론적 접근 방법이 타당한 것이며 이와 같은 것은 제주도의 지명이나 신화 및 전설, 민요 등이 모두 산세를 중심으로 하여 '밝은 기'를 받는 형상을 표현한 것임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4. 풍수지리가 제주도 문화에 미친 영향

1) 제주도 지명에 미친 영향

地名이란 일정한 지역의 특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명칭이며 오랜 세월을 통하여 내려오는 동안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생기는 지리적 변화나 지명어의 음운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언어학적 지식 없이는 그 뜻을 판단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제주도의 지명도 탐라국 이래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면서 내려오다 보니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었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명은 풍수지리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이해한다면 그 해독은 쉬운 일이며 최근에 도내 각 마을에서 향토지를 출판하면서 각

마을 명칭의 어원을 미상으로 하여 출판하는 경향이 아주 많은데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다고 본다.”

우선 지면 관계상 많은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어서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풍수지리와 지명과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한림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은 고대 선사 유적지이며 현재 동명리와 명월리 마을 명칭의 근원인 明月(붉은 돌)이란 어원의 발생지인데 그 지역의 지명을 보면 발전소 위 동산을 보로못동산이라 한다.

즉 보로못=보로+못=보리(밝게 내려옴)+못2)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보로못동산이란 말은 결인 즉 생기를 최종적으로 용맥을 통하여 혈장에 보내야 하는데 생기를 결집해 주고 생기의 양을 조절해 주기 의해서 龍의 목을 묶어 氣를 모아 주는 동산이란 뜻이다.

그리고,동명리 문수동 지역 과 동명리 한천동 남쪽 지역은 옛 지명이 쇠돈(牛叱屯)이라 하였는데 이 지역은 용맥이 혈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돈복(頓伏)하는 지역에서 유래된 것이며 명월리 고림동을 괴수폴(古林洞)이라 부르는데 고양이가 서식하였다 하여 이루어진 이름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괴는 ㄱ(용맥이 머물러 중심 출맥하고 청룡 백호가 형성되는 부분으로 괴 또는 케라고도 변형 되는데 켄 당이란 말도 여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본다)이며 수폴은 빼어나게 부푼다는 뜻으로 이를 종합하면 ㄱ가 빼어난 곳이란 말이 된다.

2) 밝은 형을 이루기 위하여 결인한곳

제·주·의·문·화

한편 다른 마을의 지명도 이와 동일한 형식을 이루고 있고 제주도 방언도 풍수지리적인 관점으로 형성되어진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도 지명이나 방언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풍수지리를 연구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어도(泥御都)는 明堂이다.

이어도란 말은 ‘幻想의 섬’ 또는 ‘理想郷’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나 이어도란 말을 풍수지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어도는 泥御都(용맥이 다하여 내용이 이른 곳 즉 ‘붉은 돌’이 됨)라 표현할 수 있는데 명당이란 말이 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기가 밝은 곳 즉 명당에만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사는 것이 희망이었으며 이것은 또한 인간들도 밝은 기를 가져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상생활에서 ‘이어도’를 부른 것으로 보여진다.

전설상으로 보아도 이어도는 여자만이 산다고 하는데 명당은 여성을 상징하는데서 유래된 것이고 남자가 이어도에 가면 죽는다는 것은 용맥은 남성을 상징하고 명당은 여성을 상징하여 내용이 명당에 이르러 음양충화하는 것을 죽는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며 등장 인물인 대정현 강씨는 姜씨가 아니라 岡(내용)씨이므로 岡은 明堂에 이르러 죽게 된 것이다.

3) 집안에서 문전제(門前祭)는 풍수지리 이론에 따라 달리하였다.

문전제라 함은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출입문 앞에서 간단히 차례를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제주도내 집안 대부분은 출입문 쪽에서 지내고 있으나 소수는 내용을 향하여 지내고 있다.

神이란 氣의 흐름에서 변형된 것이며 形氣論에 따라 지기를 중심으로 본다면 당연히 내용을 향하여 祭를 지내야 할 것이나 理氣論에 따르면

출입문 쪽을 향하여야 할 것이다.

제주도 지형은 용맥이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북으로 분맥하고 있으므로 형기론적 이론에 따라 내용을 향하여 제를 지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이기론이 득세를 하게 되었고 조선조의 중앙집권 정책은 탐라의 고유 문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제주도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형기론적 입장은 존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5. 맺는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풍수지리는 제주도 지역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 연구가 아주 부족한 실정이며 풍수지리학 자체가 모자 설정이나 주택 건축에 활용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문화적인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탐라 문화를 재생하는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며 제주도의 기본 사상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만아니라 인류문화의 근본을 연구하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